

대전충청지역 건설재해예방을 위해 한자리에 모여

취재 | 최종덕 기자



이 강 영 산업안전과장

대전충청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8개 기관 60여명은 지역 내 재해감소를 위해 “나의 안전은 모두의 안전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지난 4월 9일 장태산 자연휴양림 산림문화휴양관에 모였다. 충청지역에서의 건설재해 감소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충청 관내 건설안전 전문가들이 총 집합, 오늘 뿔리내린 협의체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노동부 대전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의 역할이 컸다.

이들의 이 같은 모임은 이번만은 아니다. 지난 2003년부터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협의회를 구성하고 활동을 시작했으나 각 기관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제대로 융화되지 못하며 구성과 해체를 반복해왔었다. 노동부 관할 지청의 중재와 재해감소를 위한 전문가들의 마음이 모아지면서 예전과 사뭇 다른 협의체가 금년 새롭게 출발되었다.



전 준 흥 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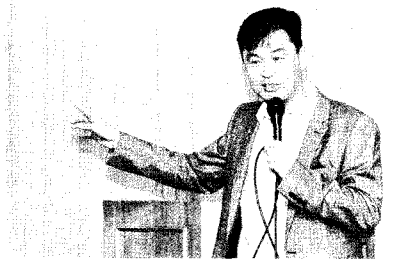
모두들 이해관계를 떠나 대전충청지역에서의 건설재해예방을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모인 이번 자리는 심상치 않아 보인다. 이날 장태산에 모인 목적도 중소건설현장에서의 재해감소를 위해 기존에 이들이 시행하고 있는 기술지도를 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함께 모색해 보자는 취지였다.

건설재해예방을 위해 한자리에

이번 워크숍의 테마는 “산재감소 및 기술지도 개선”이었다.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산재감소를 위한 현실적인 방법을 전문가들 입장에서 도출하는 시간이다.

그 첫 번째, 건설안전지원센터 전준흥 사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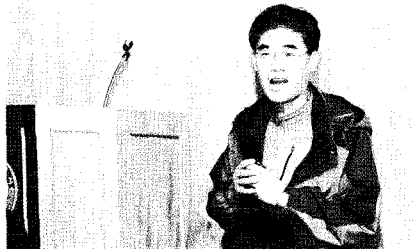
앞으로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들이 가야할 방향에 대한 주제로 나선 전사장은 발표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키우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모인 전문가들이 먼저 자기개발과 재해예방을 위한 개발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 연 사장

전사장은 다시 “전년 1/4분기 대전충청지역에 766개 현장에 대해 기술지도를 수행했으나 금년은 동분기 동안 376개 현장만 기술지도를 하고 있다”라며 “아직도 기술지도를 회피하는 건설사가 많다”고 우려했다. 홍보를 통해 기술지도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전문가들도 건설재해감소를 위해 기술지도에 있어 형식적인 부분을 과감히 손질하여 공정별 위험요소 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안전교육을 기술지도에 패키지로 적용시켜 안전의식 개혁과 안전수준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대안도 내놓았다.

이어 주식회사 금강건설안전공사 김대연 사장과 대한산업안전협회 대전충남지회 주도종 팀장은 효율적인 기술지도를 위해 규모에 따른 기술지도 보고서가 특성화되어야 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방법론적으로 접근하여 각각 발표했다.



주 도 종 팀장

금강건설안전공사 김사장은 기존의 기술지도들이 다소 형식적인 부분이 있다며 측정장비의 현대화를 통해 정밀하게 현장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과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점검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산업안전협회 대전충남지회 주팀장은 점검방식과 결과 보고방식의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그

동안 협회에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던 점검결과 보고서를 선보이고 작성방법을 소개했다. 이 보고서는 기존의 틀을 깨고 현장 위주의 보고서라는 점에서 좋은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렇게 지역 건설재해예방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는 이들의 열정에서 대전충청지역의 산업안전에 대한 결과가 금년 어떻게 그려갈지 기대된다.

마음도 하나, 몸도 하나

그동안 건설현장만 오갔지 언제 봄이 왔는지조차 몰랐던 이들 전문가사람들은 모처럼 따뜻한 봄 햇살을 만끽하며 웃음꽃을 피웠다. 세미나실을 출발하여 전망대를 돌아오는 등산코스에서는 가장 먼저 도착하는 사람에게 작은 선물을 주는 이벤트를 실시하여 모든이들로 하여금 마음마저 따뜻하게 했다.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동안 자주 봤던 사람도 있겠지만 이 시간 만큼은 소속을 떠나 손에 손을 잡는 모습은 한 공동체며 하나의 기관이라는 느낌마저 들었다.

이어 벌어진 족구경기.

볼을 잘 다루는 사람은 감탄사를 주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웃음을 주었다. 이들은 계임을 통해 이기고 지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그저 같이 어울려 웃으면서 하나되는 이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다.

몸이 건강해야 대전충청지역 산재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어서인지 매사에 열심히 달리는 대전충청지역 건설안전재해예방 전문가 사람들은 아름답기만 하다. ☺

